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의 급상승을 이끈 효자 모델인 기아차의 니로EV,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EV 모델로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1위 탈환을 이끈 르노 조에, 삼성SDI의 주요 고객사인 아우디의 첫 순수 전기차로 고가임에도 중형 SUV 세그먼트에서 판매 1위에 오른 e-트론(왼쪽 사진부터),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전기차 글로벌 배터리 톱5에 모두 오르며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기아차·르노·아우디

LG에너지솔루션, 10만대 팔린 ‘르노 조에’ 효자

유럽서 가장 많이 팔린 EV모델
삼성SDI 고객 ‘아우디 e-트론’
전기 SUV시장서 4만7000대 팔려
SK이노 고객 ‘니로’ 5만대 돌파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들이다. 2020년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한 배터리 사용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26.8GWh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SDI는 89.1% 증가한 8.2GW로 3위, SK이노베이션은 7.9GWh로 3.8배 이상 급증하며 4위에 올랐다. 국내 3사가 전기차 배터리 톱5에 모두 오르며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약진을 이끈 핵심 전기차 브랜드와 모델과 특징, 향후 전망을 살펴봤다.

●LG에너지솔루션, 압도적 1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 주요 고객사는 테슬라, 르노, 현대차, 아우디, 폭스바겐, 웨보레 등이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1위 탈환을 이끈 핵심 차종은 르노 조에, 폭스바겐 ID.3, 포르쉐 타이칸 EV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량 (중국 시장 제외)						단위 : GWh(기가 와트 아워)	
순위	제조사	2019년	2020년	성장률	2019 점유율	2020 점유율	
1	LG에너지솔루션	12.3	26.8	117.70%	23.7%	33.10%	
2	파나소닉	25.2	25.6	1.50%	48.6%	31.60%	
3	삼성 SDI	4.3	8.2	89.10%	8.3%	10.1%	
4	SK이노베이션	2.1	7.9	282.50%	4.0%	9.7%	
5	CATL	0.2	5.3	2451.10%	0.4%	6.5%	
6	AESC	3.9	3.8	-2.20%	7.5%	4.7%	
7	PECE	2.0	1.7	-13.30%	3.8%	2.1%	
8	LEJ	0.8	0.6	-24.10%	1.5%	0.7%	
9	BYD	0.4	0.4	17.0%	0.7%	0.5%	
10	A123	0.1	0.7	231.3%	0.1%	0.2%	

※ 전기차 판매량이 집계되지 않은 일부 국가가 있으며, 2019년은 집계되지 않은 국가 자료 제외함.

다. 특히 르노 조에(Renault ZOE)는 2020년 유럽 시장에서 10만657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EV 모델로 기록됐다. 르노 조에는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주행가능 거리가 309km(WLTP 기준 395km)이다. 폭스바겐 ID.3도 지난해 유럽에서 5만3138대를 판매하며 유럽 EV 시장 3위를 차지했다.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는 콤팩트 전기차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3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 중국 시장을 포함하는 글로벌 순위에서도 2020년 중국 CATL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물량의 20% 가량을 테슬라 모델3에 공급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SDI, 아우디 e-트론이 성장 견인

삼성SDI는 BMW, 아우디, 포드, 피아트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아우디 최초의 전기차인 e-트론과 포드 쿡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의 판매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했다. 아우디 최초의 순수 전기차인 e-트론은 국내 출시가격이 1억1700만원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글로벌 전기 SUV 시장에서 4만7000여 대나 팔리며 중형 전기 SUV 세그먼트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다. 95kWh의 배터리 용량에 1회 충전으로 307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SUV 모델임에도 제로백 6.6초의 고성능과 넉넉한 공간을 갖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삼성SDI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기 위해 헝가리 공장에 약 9400억 원을 투자해 투자해 생산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BMW, 폭스바겐 등의 신형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면 향후 삼성SDI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기아 니로EV로 고속 성장

SK이노베이션의 주요 고객사는 기아와 현대차, 포드 등이다. 이중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을 성장을 이끈 모델은 기아 니로 EV다. 니로 전기차는 지난해 내수 3199대, 수출 4만808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5만1282대를 판매했다. 1회 충전으로 38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64kWh 배터리와64kWh 배터리, 1회 충전에 240km이상 주행이 가능한 39.2kWh 배터리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후발 주자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니켈 비중을 무려 90% 중반대까지 높인 초고밀도 배터리와 에너지밀도를 높이기 위해 음극재에 규소를 첨가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달리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1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김승연 한화 회장, 경영 복귀하나? 신사업·경영승계 등 광폭 행보 예상



김승연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취업 제한이 18일 종료되면서 그룹 경영 복귀 시점과 방식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주)한화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끝나고, 18일자로 2년간의 취업제한 기간까지 모두 종료되면서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는 법적 부담을 털어낸 김 회장의 경영 복귀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한화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경영권 승계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비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왔지만, 공식적인 복귀와 동시에 김 회장의 경영 스타일에 맞는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린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의 역량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한화그룹의 신규 사업 전략과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경영 복귀와 동시에 미래 사업 전개를 위한 과감한 M&A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승계 작업도 관심사다. 현재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은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3남인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는 에너지 신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세 경영 준비작업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김 회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로 복귀할지, 등기이사는 맡지 않고 회장 타이틀만 가질지 여부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 총회 일정이 정해지면 안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원성열 기자

한국조선해양, 5400억 규모 선박 9척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5400억 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소재 선사들과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Very Large Crude-oil Carrier) 3척, 4만 입방미터(m³)급 중형 LPG 운반선 2척, 5만 톤급 중형 석유화학

제품운반(PC)선 3척, 18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컨테이너선 1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길이 328m, 너비 60m, 높이 29.6m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원유운반선 31척 중 17척을 수주하며 전체 발주량의 55%를 확보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SK이노, SK종합화학 지분 매각 추진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JP모건을 매각자문사로 선임해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SK종합화학 지분 매각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석유화학 사업 자산을 줄이고, 친환경 투자를 강화하는 체질 개선의 일환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2월 24일(수) 음력: 1월 13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박: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박: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박: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박: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가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바라는 일은 성취된다. 기발한 모험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근심해야 한다. 때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바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발전이 있겠다. 우왕좌왕하기 쉬운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뜻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박: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박: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박: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박: 남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იდ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력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울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머리를 쓰라. 이룬다.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대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야한다. 욕심 부리지 말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의 날씨 24일(수)

서울	20/10	인천	20/10	춘천	20/0
	-4 9		-3 5		-6 10
강릉	20/0	대전	20/30	전주	30/30
	-1 7		-4 11		-2 10
광주	30/30	대구	20/20	부산	20/20
	-2 12		-2 12		2 12
창원	20/20	제주	0/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0 11		4 14	날씨	최저 최고기온℃